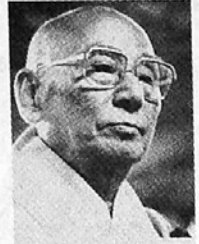


‘도가 본시 없는데...’

서암스님 회고록 발간



“오로지 내가 승려대회를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중정 불신임’을 결의하고 말았다... 일반사회에서나 종교 집단에서나 목은 힘과 새로운 힘이 부딪칠 때는 정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된다. ...

중정불신임 당시 심정 불교미래상 등 밝혀

이래서는 누구와도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사표를 냈다. 지난해 4월 조계종사태 와중에서 추대 140일만에 중정직을 떠났던 서암스님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밝힌 회고록<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나>(도서출판 동지)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정직을 떠나면서 거제도도 잠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시비의 마당을 떠나버렸는데도 여러 곳에서 나를 고리로 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것은 시비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어 ‘잠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암스님의 육성을 작가인 이창씨가 내용별로 단락을 나눠 재구성한 형식의 이 회고록에서 서암스님은 출가 인연에서 일본유학, 봉암사선원 개원과 수행 등의 과정을 회고하고 있다. 또 일제하에서 해방, 한국전쟁, 정화, 10·27법난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장과 한국불교를 의연히 지켜온 선승들의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도 소개했다. “후생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끈기있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성화를 이기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으로 엮었다고 출간이유를 밝힌 서암스님은 현재 삼각산 중흥사를 재건, 대웅선원으로 개원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불교, 日고대문화 원류”

홍윤기씨 ‘한국인이 만든...’ 타무라씨 ‘한국과의...’ 동시 출간

“식민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도 했다”는 일본 총무청장관 에토의 망언과 해임파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고대문화가 한국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됐다는 내용을 문헌과 유물·유적을 통해 밝힌 두 권의 책이 동시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대외적인 국보는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하는 법흥사 동대사 정창원(正倉院)에 몰려 있다. 한국인이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근대·고대사 문헌에 근거하여 한일고대사를 분석한 홍윤기교수(일본 전수대학 개원연구원)의 최

내어 은폐되었던 한일고대사의 사실들을 낱말로 밝혀 한국문화의 일본 유입과정과 그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위해 일본 고서점의 서가를 일일이 뒤지다시피한 험준한 과정을 거쳤다. 이 책은 한일고대사를 다룬 지금까지의 책들과는 달리 일본의 권위 있는 고대사연구자 및 불교학자 고고학자 미술사가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특히 일본국보 제1호인 보관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관련, “서울의 덕수궁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에



홍윤기교수(일본 전수대학 개원연구원)의 최내어 은폐되었던 한일고대사의 사실들을 낱말로 밝혀 한국문화의 일본 유입과정과 그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위해 일본 고서점의 서가를 일일이 뒤지다시피한 험준한 과정을 거쳤다. 이 책은 한일고대사를 다룬 지금까지의 책들과는 달리 일본의 권위 있는 고대사연구자 및 불교학자 고고학자 미술사가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특히 일본국보 제1호인 보관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관련, “서울의 덕수궁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에



홍윤기교수(일본 전수대학 개원연구원)의 최내어 은폐되었던 한일고대사의 사실들을 낱말로 밝혀 한국문화의 일본 유입과정과 그 실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홍씨는 이를 위해 일본 고서점의 서가를 일일이 뒤지다시피한 험준한 과정을 거쳤다. 이 책은 한일고대사를 다룬 지금까지의 책들과는 달리 일본의 권위 있는 고대사연구자 및 불교학자 고고학자 미술사가들의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더한다. 특히 일본국보 제1호인 보관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관련, “서울의 덕수궁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전신)에

일본국보 대부분 한국인 솜씨 에토망언속 ‘문화유입과정’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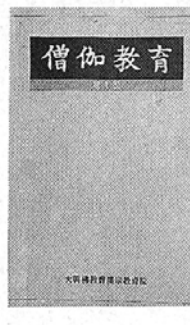
근의 저서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문화세계사)의 결론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본의 원로불교사학자 타무라 엔초(田村圓中·류슈대 명예교수)는 <한국과의 만남>(민족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스카·하쿠호·나라 불교는 고대 한국불교의 은혜로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실의 발굴이야말로 고대 일본불교사의 당면 임무의 하나가 아닐까.” “한국을 먼 나라로 있게 한 것은 근대 일본이 저지른 바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을 다시금 ‘가까운 나라’로 하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이 역사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만이 결실을 볼 수 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국보>는 홍윤기씨가 일본 사학자들의 논문과 저서들, 고대의 기록과 서적들을 찾아

는 이것(일본국보 1호)과 매우 흡사한 금동미륵상이 있는데, 한국에서 건너온 불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고 쓴 미술사학자 미즈노 세이치(水野清一)의 저서 <법

‘승가교육’ 제1집 발간

조계종 교육원, 현황점검 발전방향 모색

승가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 <승가교육>이 발행됐다. (조계종 교육원 펴냄). 년간지로 발행될 <승가교육> 제1집에는 특집으로 그동안 교육원이 ‘승가교육’의 체계화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문을 실었다. △승가기본교육의 체계화(박성) △지방 승가대학 교육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광덕 ‘보현행원품 강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이다. 꿈에 어머니는 평소 대로 침대 위에 누우셨다가 조금 떠오르더니, 공중에 누운 채로 조았던 나사못을 풀듯 몸이 느슨하게 풀려나가는 형상을 보이셨다. 깜짝 놀라 깨는 순간에 운명하셨다는 전황이 울렸다. 어머니는 평소 사대(四大)가 흩어지는데 내 것이랄 실체가 어디 있는가를 참구하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만고의 진리인 공(空)의 도리를 남이 현현해 보이시고, 딸만 있는 집 말랄인 내게 아버지하고 남은 인연들을 부축하시고 법담계 열반에 드셨다고 믿는다. 주위에서는 어머니를 관세음보살이라고들 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그저 나누려고 애쓰신 그 덕화가 늘 주위를 훈훈하게 했던 것이다. 그 무렵, 나의 정신적 스승이시며 언제나 환희로운 불발의 바다로 인도 해주시는 불광사 법주이신 광덕스님께서 손수 집

님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隨喜功德), 청전법륜(轉法輪), 청불주세(晴佛住世), 상수불학(常隨佛學), 항순중생(恒順眾生), 열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향(普皆迴向)하는 것이니라. 주고 또 주고 마지막에는 사대까지도 아낌과 미련없이 버리는 도리, 그때마다 주는 마음, 버리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식세계인 마음자리를 더욱 넓혀가며 자재롭게 해준다. 오히려 크게 얻는 도리, 불사의 진정



윤용숙 (여성문제연구회장)

열가지 행원 회향도리 일깨워 뜻 새길수록 마음자리 넓어져

필하신 <보현행원품 강의>를 보내주셨다. 보현행원품은 화엄경 80권 밖의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진면목이 아니던가. 더구나 보현행원품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경전이 아닌가. “그때에 보현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열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보현행원품의 열가지 행원은 어머니가 내게 평생의 삶으로 가르쳐준 것에 다름 아니었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禮敬諸佛), 칭찬여래(稱讚如來), 광수공양(廣修供養), 참회업장(懺悔業障), 다섯째는

한 ‘회향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대대로 불자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인생을 고뇌하지도 않고 종교적 갈등도 없이 처음부터 부처님의 인연바다에서 살게 하신 수승한 복덕을 생각하면 오매불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처님의 정법을 호자하고 보현행자로서 보살의 길을 가는 ‘회향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나의 삶이 조금의 복덕이라도 된다면 그것은 모두 어머니가 내게 베푼 덕화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인 열가지 행원이다. 보현행원품은 나의 노래요 길이다. 보현보살의 덕화가 온누리에 보현의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맺어 진정 이 땅이 바로 불국토이길 두손 모아 합장한다.

새로나온 책.....

- ▲어둠에서 밝음으로(불교전산연구원 엮음)=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담긴 아함부경전 가운데서 재가불자를 위한 가르침만을 가려뽑아 엮었다.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폐속바라문에게 12가지 비유로써 사견을 버리게 하는 내용의 폐속경 등 41경을 소개했다. (파계사, 법보사)
▲죽비의 소리(여연 외 지음)=월간 <해인>지에 지난 90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렸



던 같은 제목의 글을 모은 칼럼집. <해인>지의 편집위원을 지낸 여연 도자 일관 현승스님 등 열두 스님이 필자로 참여했다. (가리온, 5천8백원)
▲제공스님(이필연 지음)=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을 갖

사람을 참배, 답사하며 느낀 정회를 표현한 시조집. 우리나라 명산과 사암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사찰마다의 특성과 교훈을 간략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부다가야, 3천5백원>

▲속리산(글·박원식 사진·김상훈)=‘세속을 여린 산’이라는 뜻을 지닌 속리산의 역사생김새 명승지 및 범주사의 팔상전 대웅보전등 주요 유물·유적과 문화재를 소개. 기존의 관광안내서와는 달리 역사적·인문학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원사, 3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편자 (Author/Editor), 출판사 (Publisher).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기도', '사찰의 벽화이야기',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나'.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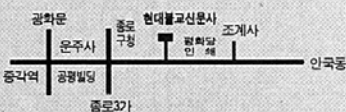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운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실었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